

양돈불황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소고

누구에게든 위기에 처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다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가 오기전 까지를 되돌아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던가를 반성해 보는것도 그렇게 늦지 않다.

반성하는 과정에서 근시안적이고 일시 변동적인 자세는 깨끗이 버리고 恒久的이고 長期的인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할 것이며 순수한 思考위에 검토된 사항은 그이후 어떠한 惡條件이 오더라도 이것은 다음을 발전을 위한 한걸음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 양돈가족도 우리 인간과 같은 삶의 집단이다.

이번 필자는 양돈업을 경영하면서 생활조건에서 조금 다른 양돈가족의 생태를 알게된 것 같다.

양돈인은 때로 친자식처럼 사랑스럽고 정이 가기도 하며 병약한 허약자돈을 볼 때마다 애처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시커먼 똥을 뒤집어 쓰면서도 냄새가 나도 사랑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식량자급도가 50%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이 부문만도 우리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많은 외화를 아무 대가없이 외국에 지불하게 된다.

이것은 연간 약 1조 5,000억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식생활패턴의 나머지 50%를 우리의 自力으로 대처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은 尙后 매우 중요한 일이며 衆知를 모아야 하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느낀다.

이것을 위해선 우리 모두 다시한번 반성하고 힘을 합하여야 한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말 이전에 실행과 반복실천. 노력과 양보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꼭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하면 각자 자기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즉 축산을 하는 사람은 영양보급과 식량자급의 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 개발해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으는 반면 주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경제의 빈약으로 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사람에겐 정부에서 대리 개간하여 완성시켜 반 비율로 이익분배를 하는 방법도 좋으며 피담홀려 수확한 보람도 없이 싼값에 팔아 인건비도 찾지 못하는 허무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 보장제도를 해주어야 한다.

축산물도 모든 불황속에서 사료가격은 오른반면 축산물가격은 밑바닥에서 해매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長久之計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마



손 용

〈서원축산〉

음 간절하다.

우리는 진정 몸과 마음을 합하면(사심 없이) 몇년가지 않아도 반드시 부족한 식량(50%) 도 해결되리라 믿는다. 이것은 아무것도 생각치 말고 우선 실천만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 보고 싶다.

주무부처는 전체흐름을 면밀파악 전체를 통괄하고 인도하는 입장에서 바른길로 이끌어 주는 가운데 그 속에서 애로점과 장애요인을 정확한 데이터(date)를 잡아 적절한 지원의 길을 택하여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을 보살피 융합된 정책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래 저래 않된다는 구태의연한 책임전가 같은 자세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버려야 할 것이며 우리모두 이러한 흐름을 한 방향으로 슬기롭게 마련했을 때 꿈을 현실로 만들수 있는 절규를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

이 결과 즉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되었을 때의 결정은 진정 값이 있고 이곳에는 보람과 슬기로운 결과가 탄생되면 이것은 반드시 영원할 것이다.

대인은 소인에게 항시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축산을 하다보니 몇몇 기업군이나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각나며 실로 한심한 것도 느껴진 것이 사실이지만 돼지를 검은색의 돼지를 흰색 혹은 붉은색으로 바뀌게 한 기업농가는 양돈산업의 전환기에서 위대한 농촌창조에 일익을 담당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전국의 돼지가 랜드레이스·요오크셔, 듀록, 라지화이트, 햄프셔로 교체되는 8~9년간의 세월중 큰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좋은일을 하고 건전하게 사업이 번창한 것은 모두가 축하해 마지 않는 바이다.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래도록 붙잡고 있어서의 식이 흐려지고 자기자신의 입장을 모르는 사고는 납득이 안되며 좋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업의 사회성을 망각한듯한 일은 가끔 일어나는 실수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전국농가가 100~200만 가량 부채를 짊어지면(전국농가 60만호) 하루 아침에 아니 일시적이라도 모든 의욕은 사라지고 그 동안에 쏟은 열과성이 풍지박산되는 쓰라림을 그 누가 수습하고 그누구의 위로가 소용있겠는가.

옛말에 대인은 소인에게 항시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못할경우 대인은 소인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을수 있다. 그러면 대기업은 많은 전국의 축산농가가 현재 받고 있고 앞으로 언제까지 받을줄 모르는 고통과 많은 손실(loss)을 과연 적절한 변명만으로써 외면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우리의 기업은 타국의 기업보다 더욱 더 사회성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특히 우리나라 현실이 분단으로 인한 긴장속에 있으니 더욱 더 그러하다.

면적도 그렇게 넓지않은 반면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업도 이러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모든 엘리트의 머리를 한데모아 1차산업과 관련된 부문은 항시 전체의식을 감안 하여야 할것이며 정부에서 복합영농정책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시책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1차산업을 대기업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예의인데 아직도 그것을 잡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며 대기업의 상당수가 1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개탄해 마지 않을수 없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작은 나라이며 자원도 없는 나라이다. 우리의 현실과 같이 긴박한 여건에 항시 처해있고 주위에 수 많은 대국(경제부국) 속에 있으면서 아직 이스라엘

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결코 들어보지 않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이 자기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해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 내려고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합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라 할수 있겠다.

대기업은 비육돈 사육에서 돈을 떼야

대기업이 사료에서 사육·육가공사업까지 일괄 작업을 하고있다면 현시점과 같은 불황의 시기에서 1차산업 즉 사육은 과감히 정리하고 옥수수 기타 외국 곡물을 많이 도입하여 만들어 낸 사료값도 인하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 모색하고 지방층이 얇은 우량종돈 개발보급과 불황속의 축산물을 시중구입하여(때에 따라 비축) 값싼 가공식품(대중화될 수 있는)을 만들어 싼 값에 공급하여 근로자나 봉급자들이 부담없이 사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장 모순이 많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가공식품의 수출이 조속한 시일내에 될수 있도록 방법도 연구하여야 한다.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합 농민들의 생계는 생각하지도 않고 대기업이나 도시자본이 1차산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계획한다면 많은 축산농가에 출혈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결과가 되는데 이걸 묵살해서도 안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모든 것을 금전만을 생각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여서도 안되며 이것은 결코 돈만으로 끝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사명감이 결여된 기업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근대화도 자꾸만 늦어지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늦어지게 될 것

이다.

돼지가격이 kg당 1,860원선에서 약 절반인 930원선으로 절반이상이 폭락 했는데도 햄·소세지 가격은 1,860원 시세때의 가격과 동일한게 사실이니 생산농가는 헐벗고 굶주리지만 가공식품가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뭐라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햄·소세지의 의미는 돼지고기가 원료라는 것이 외국의 어원이라지만 대체적으로 햄·소세지 가격이 너무 비싸 대중화 하기에는 아직 그림의 떡같이 느껴진다. 햄·소세지를 우리실정에 맞게 재조명 연구검토하여 염가위주로써 모두가 부담없이 사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대기업에 바라고 싶은 것은 해외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외국작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료가 격인하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국내 소비자에게 생체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매비축하여 육가공식품을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물량이 많아 국내처리 곤란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조속히 수출을 실현하여 1차산업을 정리해도 양돈부의 사업은 충분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헐뜯는다는 것도 아니며 불황이 닥치고 난후 이런등 저런등 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불황의 시기에 즈음하여 슬기롭게 향후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을 해주고 소농가는 다시 의욕을 찾아 불황을 조기 근절시켜 외화낭비를 줄이는데 우리모두 힘을 합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외화를 절약하는 반면 농가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길을 타개해 주는 길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다시한번 모든것을 되돌아보고 자신과의 싸움을 정정당당히 할수 있도록 또한 서로의 불행보다 노력의 대가를 하루속히 되찾을수 있는길을 모색하는 것도 결코 늦지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촌기반이 아직 뭐라해도 미약하고 허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향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중에 농촌경제의 자립기반 확충과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느낀다.

농촌에서 확고한 안정기운이 일어남으로서 허약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기반이 더욱 확고히 서리라 믿는다.

주무부처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역할을 다하여 실제로 복합영농이 확고히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결코 수박 겉 핥기식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농촌경제의 안정이 이루어 지기 이전에는 항시 구멍뚫린 물독과 같은 경제의 연속이 될가능성이 많다. 우리와 G. N. P가 비슷한 대만이 내실경제로서 우리보다 훨씬 안정과 굳건한 토대위에 서있는건 10여년전에 이미 농촌경제가 먼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의 자립기반확충과 활성화가 시급

향후 주무부처 정책결정이 완료되면 열심히 그대로 해보겠다는 의욕이 결코 무산되지 않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따랐으면 한다. 임시변통은 구멍이 뚫린게 돌아서면 보이게 마련이다. 강국에서는 새해에는 작년보다 나은 농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매스컴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될 수 있도록 농촌사람들이 새희망을 항시 가질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쇠고기를 먹으면 외국에 우리돈을 갖다 주는 게 그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돼지고기를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싼값으로 사서 영양보충도 볼고루 될것이며 외화도 크게 절약되어 이돈은 국내에 비축되어 다시금 그 잠재구매력을 유발

시켜 타상품을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재투자되어 활력을 간접적으로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주무부처는 국민에게 홍보를 종전보다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수입쇠고기의 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조속히 인상하거나 하여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하루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과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영양이나 맛이 어느쪽이 가격에 비하여 그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한번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조성과 과거 관습이나 인습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쇠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하는 것도 단순히 매우 중요한 계기를 탄생시킬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것이다.

주부는 시장바구니에 비싼 쇠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넣고 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풍토가 아쉽고 농민들이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위하여 돼지 몇마리 키워 상당한 부채를 안게 된다는 것은 매우 큰일이며 전국적으로 보면 막대한 부채가 탄생되고 이것을 회복하는데는 아직 우리의 농촌경제의 현실로 볼 때 시간이 오래가며 상당한 고통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통에 잠길 것은 당연하지만 우선 우리의 할일은 돼지파동을 조기에 조절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농촌의 1차산업은 반드시 전문화 되도록 정부의 제도적장치가 절실히 요구되며 땀 흘린 만큼의 최소한의 대가가 하루빨리 보장되어 허탈에 헤메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농촌활성화 기운에 모든힘을 다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불황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외화의 낭비가 심화되고 의욕을 잃은 사람이 더욱 많아진다면 불이익이 쌓여 불신과 불협이 계속 쌓여질 것이다.